



2019 지역특화 식량작물 수출컨설팅(12차, 밀양) 결과보고

보고일 : '19. 11. 20(수)

보고자 | 기술지원과 이철희 연구관

□ 개요

- 일시/장소 : '19.11.19(화) 14:00~16:00, 상동로컬푸드떡체험장
- 참석자 : 상동곶잎작목반 김응한 대표, 밀양센터 이주은 지도사 등 20명
- 컨설턴트 : 농과원 토양비료과 김유학 연구관 * 진행 : 이철희 연구관

□ 주요내용

○ 주요 컨설팅 내용

- 갯잎 색깔이 변하는 것은 토양문제, 병해충 등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, 가장 먼저 토양의 산도(pH) 측정 필요
- 갯잎생산에 적정 토양산도는 6.0~7.0 정도가 적정하며, 이를 지키지 못하면 양분흡수에 문제를 일으켜 시들거나 갯잎의 색깔 변화를 가져옴
- 뿌리가 건강하게 물을 잘 흡수하도록 용적밀도를 낮추어 주면 물과 공기의 동시 원활한 공급 가능
- * 용적밀도를 낮추는 물질은 토양유기물(완숙퇴비)

○ 질의 및 답변

- 적정산도 유지를 위한 간단한 방법은?
 - 해당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토양분석을 의뢰하고, 산도에 따라서 석회와 고토를 사용하여 토양산도 조절
- 갯잎이 여러 하우스에서 시들고 황화현상을 보이는데?
 - 토양의 pH가 매우 낮은 경우이므로, 석회를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면 시들음 증상이 사라지고 식품체가 건강하게 회복

□ 관련사진



<상동로컬푸드떡체험장>



<수출컨설팅 모습>



<질의응답>